

과천소방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진압 이웃 주민에 소화기 전달

기사입력시간 : 2024/02/19 [11:30:00]

정재우 기자



[FPN 정재우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목격한 뒤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이웃 주민에게 소화기를 전달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께 과천시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이웃 주민이 타는 냄새가 나 주변을 둘러보니 맞은편 비닐하우스 보일러 부근에서 불이 나는 걸 목격했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60㎡와 5가구 침대, 가재도구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오후 3시 47분께 진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감한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한 덕에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화재에 취약한 만큼 이웃 주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

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